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폐막... 대중성 높였다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1월호

### 13만여명 관람... AI·환경 등 작품 눈길 5개관 소개 '온라인 전시관'은 계속 운영

지난 9월1일 개막한 2021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축제 분위기에서 열린 여느 때와 달리 코로나 19 상황을 맞은 올해는 본 전시가 열린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에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오프라인 전시와 함께 개막 한달 후부터는 다양한 콘텐츠로 꾸려진 온라인 전시관을 오픈, 디자인비엔날레 관람을 원하는 이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 것도 이번 행사의 특징이었다.

사전 예약제, 동시입장 제한, 월요일 휴관 등 예전 행사와는 다른 여건에서 행사기간 동안 본 전시관을 다녀간 관람객은 5만여명이었다. 온라인 전시관에는 8만여명이 방문, 온·오프라인 관람객은 모두 13만여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9년 본 전시관 오프라인 관람객은 9만5000명이었다.

지난 행사부터 '예술상'에 포커스를 맞춘 광주비엔날레와의 차별성을 위해 '대중성과 산업화'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이번 행사 역시 관람객들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아 눈길을 끌었고, SNS 등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들은 부담없이 전시를 즐기며 사진을 찍는 등 흥미로운 관람을 이어갔다.

'디·레볼루션(d-Revolution)'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세계 50여개 국가 421명의 작가 및 국내외 기업에서 총 1039종의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작들은 따뜻한 아날로그 감성과 AI 등 첨단 과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로 눈길을 끌었으며 환경과 생태, 기계와 인간의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작들도 많았다.

수천송이 종이 꽃들의 터널을 지나는 완다 바르셀로나와 디뮤지엄 협업작 'From color to eternity', 밀폐된 공간에서 푸른 식물과 새소

리, 물소리를 만나는 '식물 극장', '나 가져든' 등 조수미의 공연 모습을 홀로그래피로 감상할 수 있는 '조수미 홀로그램 씨어터', 폐품을 활용해 만든 김상연의 '바다를 유영하는 고래' 등은 사진 스폿으로 인기가 높았다.

또 디자인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의자를 통해 다양한 상상을 펼치고 환경 등의 문제도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의자 컬렉션도 인기를 모았다. '덱(DUB)'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소개한 국제관(2전시관)은 20여개의 테이블이 각각의 전시장 역할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 줬 눈길을 끈 반면, 일부에서는 다소 지루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메타버스 체험 등 코로나 19로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작품도 많아 눈길을 끌었다.

지역 업체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5전시관의 경우 전시품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전시 레이아웃과 구성이 평면적이어서 눈길을 끌지 못했으며 안전한 전시 개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밖에 행사 때마다 디자인비엔날레와 연계해 진행해온 '해외바이어 온라인 수출상담회'에서 823만불 상당의 수출계약 및 상담 실적을 거뒀다.

한편 3D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본전시 5개관의 전시 콘텐츠를 현장감 있게 구현해 놓은 온라인 전시관은 비엔날레 폐막 후에도 계속 운영된다. 전시관에서는 관람객들 눈높이에 맞춘 4가지 버전의 도슨트 서비스가 제공되며 360° VR 뷰를 통해 전시관 곳곳을 누빌 수 있다.

메타버스 체험 등 코로나 19로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작품도 많아 눈길을 끌었다.

지역 업체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5전시관의 경우 전시품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전시 레이아웃과 구성이 평면적이어서 눈길을 끌지 못했으며 안전한 전시 개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밖에 행사 때마다 디자인비엔날레와 연계해 진행해온 '해외바이어 온라인 수출상담회'에서 823만불 상당의 수출계약 및 상담 실적을 거뒀다.

한편 3D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본전시 5개관의 전시 콘텐츠를 현장감 있게 구현해 놓은 온라인 전시관은 비엔날레 폐막 후에도 계속 운영된다. 전시관에서는 관람객들 눈높이에 맞춘 4가지 버전의 도슨트 서비스가 제공되며 360° VR 뷰를 통해 전시관 곳곳을 누빌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디·레볼루션'을 주제로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린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3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예능



### '정약용·정도전 유배지에서 위로 받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남으로 '블루투어'

각박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유배문화. 많은 사람들은 유배지를 찾아 자신을 돌아보고 위로를 받는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능'은 11월호 특집으로 '유배지에서 성찰하고 위로 받다'를 준비했다. 조선시대에 손암 정약전과 다산 정약용 형제처럼 많은 이들이 섬과 극변(極邊)에서 유배생활을 해야 했다. 하지만 유배인들은 역경 속에서도 학문·예술세계의 넓이와 폭을 확장했다. 유배를 통해 피어난 손암과 다산의 정신과 저술은 미래 후손들에게 많은 것들을 건네준다.

손암 정약전, 다산 정약용, 우봉 조희룡, 원교 이광사가 유배지에 뿌린 문화의 씨앗을 살펴보고 강진 다산 정약용 유배지와 나주 삼봉 정도전 유배지를 찾아가본다.

이달의 예능 초대석 주인공은 소설가이자 언론학자인 김민환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다. 김 교수는 지난 2010년 정년 퇴임 후 완도 보길도로 내려가 오랜 소설가의 꿈을 맘껏 펼치고 있다. 첫 소설 '담정'(2013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장편소설 3권을 펴냈다.

세 번째 장편소설 '큰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로 최근 '이병주국제문학상' 대상과 '노근리평화상'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소설가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작가의 문학 이야기를 들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남으로 떠나는 '블루 투어'가 기대된다. 치유(Healing)와 아웃도어(Outdoor), 비대면(Untact), 안심(Safestay), 자연친화(Eco-tourism) 여행이 전남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보는 여행이 아닌 느낌과

환경을 생각하는 '탄소중립 여행', 스마트폰 하나로 똑똑한 여행을 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을 떠나본다.

'클릭, 문화현장' 코너는 부산의 복합문화공간 'F1963'을 소개한다. 와이어 공장에서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부산 F1963의 진화는 현재 진행형이다. 카페에서 서점으로, 갤러리에서 공연장까지 외연을 넓힌 F1963이 올해는 미술·음악·건축·사진 관련 도서를 소장한 '예술도서관'과 최첨단 모터 스튜디오까지 갖췄다.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로 떠오른 부산 F1963의 모든 것을 담았다.

코로나 19로 멈춰있던 축제들이 부활하고 있다. 대면 축제는 물론 온·오프라인 축제로의 변신을 통해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기획 '축제는 살아있다'에서는 2년만에 재개되는 '주역의 중장축제'와 함평 대안민국 국향대전, 광주세계김치축제, 해남 미남축제,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나주문화재 야행 등 11월에 개최되는 지역 축제들을 소개한다.

'문화를 품은 건축물'은 산 아래에 조각처럼 앉은 서울 김종영미술관을 찾아가고 '한국의 산사를 가다'는 호암대사 불심이 깃든 승선교와 천연기념물 선암대로 유명한 순천 선암사로 안내한다.

이외에 개관 10주년을 맞은 시민자생공간 '광주정신메이홀'의 10년 이야기, 대중문화평론가 배국남이 말하는 '오징어 게임' 세계적 열풍이 몰고 온 변화, 새창작의 출발 의미를 담아 8년만에 개인전을 갖는 김형현 조각가, 한 타석 한 타석 간절함으로 10홀런 꿈 이룬 KIA타이거즈 황대인 선수 이야기도 읽을거리다.

코로나 19로 멈춰있던 축제들이 부활하고 있다. 대면 축제는 물론 온·오프라인 축제로의 변신을 통해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기획 '축제는 살아있다'에서는 2년만에 재개되는 '주역의 중장축제'와 함평 대안민국 국향대전, 광주세계김치축제, 해남 미남축제,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나주문화재 야행 등 11월에 개최되는 지역 축제들을 소개한다.

'문화를 품은 건축물'은 산 아래에 조각처럼 앉은 서울 김종영미술관을 찾아가고 '한국의 산사를 가다'는 호암대사 불심이 깃든 승선교와 천연기념물 선암대로 유명한 순천 선암사로 안내한다.

이외에 개관 10주년을 맞은 시민자생공간 '광주정신메이홀'의 10년 이야기, 대중문화평론가 배국남이 말하는 '오징어 게임' 세계적 열풍이 몰고 온 변화, 새창작의 출발 의미를 담아 8년만에 개인전을 갖는 김형현 조각가, 한 타석 한 타석 간절함으로 10홀런 꿈 이룬 KIA타이거즈 황대인 선수 이야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 젊은 광주·대구 작가들 '달빛프리즘'

8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30일까지 대구신세계갤러리

영·호남 젊은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광주신세계미술제'와 '젊은대구작가들'을 통해 청년작가들을 지원해온 양 지역 신세계갤러리가 공동전시를 마련했다. 광주신세계갤러리(8일

까지)와 대구신세계갤러리(30일까지)에서 열리는 '달빛프리즘-젊은 광주·대구 작가들'전이다. 전시에는 양 갤러리가 발굴한 광주의 김윤안·박인선·윤준영·임현재·정현성 작가와 대구의 김미진·시혜진·윤효은·임도·최민규 작가 등 모두 10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는 지역 상황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신세계갤러리의 공모전과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한 작가들의 독특한 색깔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젊은 작가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맺은 '달빛동맹'의 협력사례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1995년 개관한 광주신세계갤러리는 1996년부터 광주신세계미술제를 통해 많은 작가들을 발굴·지원해 왔고 2016년에 개관한 대구신세계갤러리 역시 '젊은대구작가들\_young Daegu artists' 전시를 통해 대구 미술을 이끌어 나갈 젊은 작가들과 함께할 방법을 모색해 왔다. /김미은 기자 mekim@

### 퀸즈앙상블 '빛을 듣다'

4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음악과 영상으로 '빛'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콘서트 앙상블 '빛을 듣다'가 오는 4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퀸즈앙상블(대표 김진아)의 주축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무기력해진 현대인들의 공허한 마음에 빛의 따스함을 나누주기 위해 기획됐다. 피아노, 플루트, 바이올린, 비올라 등 다양한 악기와 영상의 조화로운 융합은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우는 빛과 같이, 어떤 이에게는 희망을, 또 다른 이에게는 따스함을 전한다. 레퍼토리는 립스키코르사코프 '왕벌의 비행', 베버 '플루트,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3중주', 인판테 '안달루시아댄스', 문티의 '차르다시', 비제 '카르멘', 생상스 '죽음의 무도' 등이다.

사회는 오원화가 말았으며 무대에는 바이올린 김시아, 비올라 이세기, 플루트 김윤하·고후주, 첼로 김지윤·임수연, 피아노 이유정·장희경 등이 오른다. 전석 초대. 문의 010-6757-666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최민규 작 'Present'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